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의해’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신라불교 외연 넓힌 1백여 고승 행장 수록

1. '의해'의 함의
 〈삼국유사〉 전 9권 가운데 「의해」편은 「탐상」편과 함께 이 책의 불교문화사적 성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의해'에는 경술문교의 사장(四藏)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문을 세운 이들의 '뜻을 풀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교학과 신앙 두 측면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이들의 불교 이해의 '뜻을 풀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의해」편의 편목은 앞의 '왕력'과 '기이'를 제외하고는 「탐상」편과 함께 가장 많다. 그 분량으로 보면 「흥법」의 7조목, 「탐상」의 30조목, 「의해」의 14조목, 「신주」의 3조목, 「감통」의 10조목, 「피은」의 10조목, 「효선」의 5조목 등 83조목 중 「탐상」과 「의해」가 두 편명이 가장 많다. 「흥법」편에 이은 「탐상」편은 신라불교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의 「의해」편은 신라불교사의 지형을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는 고승(13인)과 거사(사복) 및 인도구법승(9인)의 특징적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의해」편은 불교 공인 뒤 진중설과 골품제가 확립된 시대로 진입한 6~7세기 진평왕 대 이래 교학과 신앙 두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고승들의 전기를 집성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서술의 형식과 내용은 양나라 혜교의 〈고승전〉, 당나라 도선의 〈속고승전〉, 송나라 찬녕의 〈송고승전〉 등의 역대 고승전류와는 편목명과 내용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다르다. 찬술자 일연은 종래 여러 고승전들의 편목들

〈의해〉, 신라불교사의 지형 아울러 고승과 거사, 인도구법승 행적 수록

을 참고한 뒤 자신의 체계에 의해 이 편명을 확정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역시도 현재의 편명 배치와 조목 배속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체재상의 고민을 적지 않게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종종 임신본의 경우처럼 일연의 제자인 훈구 무극의 추가 부분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행 과정에서 체재상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해」편에 실린 해당 인물의 분량과 내용 등으로 볼 때 전기 자료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우선 「원광서학」, 「보양이목」, 「양지사적」, 「귀축제사」, 「이해동진」, 「자장정물」, 「원효불기」, 「의상전교」, 「사복불연」, 「진표전간」, 「관동풍악발원수서기」, 「승전축루」, 「심지계조」, 「현유가해화엄」 등의 편목 중 「귀축제사」와 「관동풍악발원수서기」 2조목을 제외한 나머지 12조목은 승려 이름과 해당 승려의 특징적인 행적으로 조목명을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원광, 보양, 양지, 해숙, 해공, 자장, 원효, 의상, 사복, 진표, 승전, 심지, 태현, 법해 등의 14인과 아리아발마·해업·현태·구분·현각·해륜·현유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법사 등의 인도구법승 9인은 당시 신라불교사를 지탱했던 가장 주요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미루어 앞 시대 각층의 〈해동고

승전〉에 견주어 볼 때 〈삼국유사〉의 전 9권 가운데 「의해」는 고승전류에 가장 부합하는 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연은 「의해」편에서 고승들의 전기를 모두 종합하여 체계적인 전기를 서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는 고승전이나 행장 등에 실려 있는 내용을 거듭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 행장들에서 '빠진 사실' [遺事]만을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을 뿐이다. 이를테면 「원광서학」조에서 도선의 〈당고승전〉「원광전」을 실으면서도 「관동풍악발원수서기」를 함께 수록하여 다양한 자료의 출입을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료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바로잡기도 했지만 옳고 그름이 쉽지 않을 때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신중함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몇몇 기술 태도를 통해 일연의 「의해」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 신라불교사의 지형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달리 대륙의 선진 문화가 가장 늦게 들어왔다. 특히 신라는 오랫동안 고목신앙과 산신신앙 등의 고유신앙에 국집해 있던 6부족의 반대에 부딪쳐 불교 공인이 매우 늦었다. 때문에 불교문명과 함께 들어왔던 선진문화와의 접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서 출가행제가 된 양나라 무제의 소식은 법흥왕에게 상당한 충격과 울림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법흥왕의 출가와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는 서서히 전국도가 불교화 되어갔다. 최초의 승려행제가 된 법흥왕은 최초의 절인 흥륜사에서 집무를 보았고 그의 왕비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진흥왕 역시 말년에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왕비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이처럼 신라 왕실이 주체적으로 불교를 선도하자 나라 곳곳에는 사찰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었다. 경주 서라벌에는 많은 사원들이 지어지고 법회가 수시로 열렸다. 백성들은 "불법을 높이 받들어 믿고 복을 구하였으며" [崇信佛法求福], 사찰은 그들에게 "복을 받고 죄업을 면하는 곳" [修福滅罪之處]으로 이해되었다. "절과 절들이 별처럼 밀려서 있고/ 탐과 탐들이 가리거리처럼 나란히 간다"는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신라인들은 불교를 통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며 불교를 통해 삼한 일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와 왜와 연합한 금관가야를 먼저 합병하고 뒤이어 백제와 연합한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그리고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는 백제를 합병하고 나아가 반도내의 고구려까지 합병하였다. 이러한 합병의 정신적 힘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一心] 불교의 힘이 매우 컸다.

「탐상」편에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원들의 불탑과 불상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반면 「의해」편에는 이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했던 불교 수행자들의 행적이 담겨 있다. 일연은 이들의 행장을 시인의 안목 위에서 특징적 행적을 적출해 내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이 책의 〈의해〉편에는 신라 유학승들의 당시 행적을 자세히 기술돼 있다.

어 조목명으로 삼았다. 즉 서쪽의 진나라로 구법 유학을 떠난 원광의 '서학' (西學), 원광의 행적에 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보양의 '이목' (梨木), 지팡이를 부러뜨려 예술가 집단을 이끈 양지의 '사적' (使錫), 인도도 구법여행을 간 아홉 명의 법사들(「諸師」), 티끌세상과 함께 했던 서민불교의 성자 해숙과 해공의 '동진' (同塵), 신라의 교단을 정비하

불교는 삼한통일한 가장 큰 원동력 신라 유학승이 동아시아 불교 이끌어

고 계율을 제정한 자장의 '정물' (定律), 일체에 구속 받지 않고 살았던 원효의 '불기' (不羈), 화엄종을 전한 의상의 '전교' (傳敎), 열 두 살까지 말을 못한 사복의 '불언' (使錫), 간지를 전한 진표의 '전간' (傳簡), 사람의 해골을 돌로 만든 형상에 화엄경을 강론한 승전의 '축루' (築樓), 진표 조사의 뒤를 이은 심지의 '계조' (繼祖), '유가' 업의 종조인 태현과 '화엄' 업의 종조인 법해 등을 담고 있다.

「의해」편이 담고 있는 6~7세기 진평왕 이후 신라 불교사는 불교 공인 약 100여년 만에 기라성같은 고승 대덕들 100여명을 배출시켰다. 이들 학승들은 모두 유가, 여래장, 화엄, 정토, 진언 등의 교학을 통해 신라불교의 내포를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넉넉히 한 불교 지식인들이었다.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 전적들이 변경 삼장들에 의해 번역되자 이들 학승들은 짧은 시일 내에 입수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이들 불교인들은 신라에만 머물지 않고 수당으로 유학을 하거나 심지어는 '성지 순례'와 '불전 입수'를 위해 인도와 서역을 향해 떠났다. 그리하여 본국의 성취를 단시일 내에 흡수하여 더러는 본토인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인 예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성취는 국내로 이어져 크게 빛을 보았으며 일부는 다시 중국(지장, 무루 등)과 서역(원축, 무상 등)과 일본(혜균, 도

장, 행기 등) 등지로 전해져 그 나라 불교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3. 신라불교학의 성취

「의해」편에 실린 불교인들은 신라불교학의 대표적인 학장(學匠)들이다. 일부 학승들은 「신주」와 「감통」과 「피은」편에도 실려 있지만 「의해」의 인물들이 대표적인 불학자들이다. 법흥왕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뒤 진흥왕 26년(565)에는 임학승 명관(明觀)이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함께 「석씨경론」(釋氏經論) 1,700여 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진흥왕 37년(575)에는 진(陳)나라로 유학 갔던 신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 안흥(安弘, 安畝)이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 〈능가경〉과 〈승만경〉 및 불사리를 비롯했다. 이들 복인도 오장국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44세), 능가타(農加他, 46세), 마두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46세) 등은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의 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경?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다. 신라승 담파(曇和)는 이 번역을 한문으로 받아 적으면서 밀교 계통의 경론도 접할 수 있었다.

뒤이어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慈藏)이 돌아오면서 장경 일부(4백여 상자)를 가져왔다. 특히 명관과 자장이 가져온 경론들은 신라불교학의 연장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유수한 철학자들은 이들 경론들에 힘입어 철학적 사고의 깊이를 확보하여 독자적인 저술들을 간행하였다. 분황 원효(芬皇 元曉, 617~676)는 〈금강삼매경론〉 등 100여부 200여권, 부석 의상(浮石 義湘, 625~702)의 〈화엄입승법계도〉 등 9부 10여권, 경흥의 〈무량수경문(수설문찬)〉 등 40여부, 의적의 〈법화경집합기〉 등 25부, 도중의 〈성유식론요집〉 등 13부, 승장의 〈법망경보살계분론〉 등 7부, 현일의 〈법화경소〉 등 10부, 둔문의 〈유가사지론기〉 등 20여부, 태현의 〈성유식론학기〉 등 52부 등은 대표적인 저술들이다. 이들과 같이 많은 철학서를 남긴 저술가 이외에도 소수의

저술을 남긴 사상가들도 적지 않다. 즉 법위의 〈무량수경의소〉 1부, 지인의 〈십일면경소〉 등 5부, 영인의 〈해심밀경소〉 등 3부, 행당의 〈유가론요간〉 등 2부, 순경의 〈법화경요간〉 등 4부, 오진의 〈인명론비결약초〉 등 3부, 지통의 〈화엄요의문답〉 등 2부, 도선의 〈화엄일승문답〉 1부,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등 2부, 명효의 〈해인삼매론〉 1부, 해초의 〈왕초전축국전〉 등 3부,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 1부, 연기의 〈화엄경요결〉 등 5부, 대연의 〈대방동여래장경소〉 등 4부, 견 등의 〈화엄일승성불묘의〉 등 3부, 월충의 〈석마하연론〉 1부, 진승의 〈화엄공목기〉 1부, 의운의 〈화엄서경명장〉 1부, 정달의 〈대비바사론소〉 1부, 심상의 〈화엄기신관행법문〉 1부, 범여의 〈화엄경요결〉 1부, 가귀의 〈화엄경의강〉 등 2부, 순지의 〈현법상표〉 등 3부, 단목의 〈법망경기〉 1부, 대비의 〈금강반야경소〉 1부, 범용의 〈법계도기〉 1부 등은 이 시대의 대표적 철학서들이다..

남국인 통일신라 말에도 〈삼국유사〉「탐상」편 '전후소장사리' 조목의 기록처럼 묘요(普耀)선사가 오월국에서 두 차례나 대장경을 가져왔으며, 목화상이 후당으로부터 대장경을 가져왔다. 북국인 대발해(698~926) 황실 역시 8세기 초반에 불전해 전해지고 후반에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정소(貞素) 등이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등을 번역하였다. 이처럼 고대 사국은 인도와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한국불교 정체성 신라불교에 의존 〈의해〉에 실린 불교인, 신라불교학 거장

아와 중국 등을 통해 들어온 불전을 한역하거나 한역된 불전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행에 매진하고 교학을 연찬하여 저술들을 널리 유통시켰다. 이 시대 신라 불학자들이 남긴 저술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드높였고 인식들을 드날렸다.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성취는 신라불교의 성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의해」는 해당 인물들의 특징적인 행적의 체목을 통해 신라불교의 성취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김영태, 〈한국불교사〉(경서원, 1997).
-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39, 1982.
- 최병현, 「삼국유사의 의해편과 신라불교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제33집(2012)
-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역주삼국유사〉 V, 2003.
- 고영선,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고영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여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꿇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린1개, 맨드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맨드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맨드트와 마강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강염주 사이에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신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6

다함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